

“오직 염불에 몰두하여 주야로 6만 번을 했다”

<51> 명대(明代)사대고승 문하의 거사들

양명학의 흥기와 함께 쇠락해져 가던 명대(明代)의 불교는 다시 중흥기를 맞았다. 이러한 중흥은 이른바 '명대 사대고승'이라고 불리는 운서주광(雲棲株宏: 1532~1612), 자백진가(紫柏真可: 1543~1603), 감산덕청(憨山德清: 1546~1623), 우익지옥(藕益智旭: 1599~1655)의 다양한 교화에서 비롯됐다. 사대고승은 사상적으로 모두 '선정일치(禪淨一致)'를 제창했다. 또, 각 선사의 문하에서는 상당수의 거사가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운서주광 선사의 호는 연지(蓮池)이다. 선사는 천하를 편력했고 경사(京師)에 들어와 화엄 종장인 편옹(遍融)과 선문의 소암(素岩) 등으로부터 사사를 받아 화엄과 선에 깊이 통달했다. 운서주광 선사는 당시 양명학 태주학파의 영장인 '광선(狂禪)'의 유행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선정겸수(禪淨兼修)'를 주창했다. 특히 선사는 "선적인 깨달음은 단지 '공안(公案)'의 모방(模倣) 뿐으로 참다운 '증오(證悟)'가 아니며, 여전히 '제불(諸佛)', 아라한(阿羅漢) 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염불을 통해서만이 입증 후 아미타불의 접인으로 왕생극락을 이룰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탈법(脫法)의 요진(要津)'이라 제창했다. <답정토사십팔문(答淨土四十八問)>

운서주광 선사의 재세시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하의 명공(名公)과 고관, 장자, 거사들이 마음을 다해 스승으로 받들었다'고 기술했다. 더욱이 평제정의 <거사전> 권40~44에는 선사의 사법제자로 추정되는 30여 거사들의 전기와 수목과 있다. 이로부터 선사 문하에 상당히 뛰어난 거사 그룹이 형성돼 조직적인 활동을 했음을 짐작케 한다. 지면 관계상 이들 거사들에 대한 자세한 행적은 생략하지만, 대다수가 모두 정토신앙에 매료돼 '칭명염불(稱名念佛)'에 몰입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유행했던 양명학 태주학파의 '광선'에 대한 반성적 움직임의 결과로도 보인다.

자백진가 선사는 자가 달관(達觀)으로 17세에 호구(虎丘) 운암사(雲岩寺)에서 출가해 유식, 화엄 등의 교학을 배웠다. 선사는 후에 오대산에서 선문의 한 노숙(老宿)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선종의 부흥에 전념할 결심을 했다. 자백진가 선사는 평생 개당설법(開堂說法)을 하지 않고서 제방의 존속(尊宿)들과 잠문했기에 사승관계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선종의 부흥과 관련해 선사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활동한 거사들은 원광도(袁光道), 조공(焦公), 구여직(瞿汝直) 등 모두 양명학 태주학파와 깊은 관련이 있

만, 구여직 거사의 <지월록>은 오히려 더욱 광범위하게 읽히면서 널리 유행해 전해 내려온다.

감산덕청 선사는 자백진가 선사와 매우 친밀한 사이로 함께 '만력장(萬曆藏: 嘉興藏)'을 편각했다. 선사의 사상은 유식, 화엄 등에도 통달했지만, 그 중심은 '선정일치'에 있었다. 진가 선사가 참선과 정심(淨心)을 통해 염불로 귀결시켰다면, 덕청 선사는 반대로 먼저 염불과 심정(心淨)을 통해 참선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실천적인 면에서는 진가 선사가 참선을 중시했지만 덕청 선사는 오히려 염불에 치우치는 성향을 보였다. 덕청 선사는 특히 대혜종고 선사의 간화선과 영명연수 선사의 염불정토를 긴밀하게 결합시켜 직접적으로 '아미타불'을 핵심적인 화두로 삼았다. 이렇게 선정일치를 제창했지만, 결국은 '염불정토'로 귀결시켰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 덕청 선사는 만년에 "오직 염불에 몰두하여 주야로 6만 번을 했다"(<영봉종론(靈峰宗論) 권5>) 할 정도로 염불에 몰입했다.

덕청 선사의 문하에도 상당수의 거사가 활동했다.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선사의 <감산노인몽유집> 권14~18의 <서문(書問)>에는 서신을 통해 왕래한 관료사대부가 90여 명이 이르는데, 그 가운데 친왕(親王), 태제(太宰), 중승(中丞), 시경(侍卿) 등 최고위 관료들이 포함돼 있다. 선사 문하의 거사들 가운데 비교적 유명한 이들이 고원(顧源), 주로(朱魯), 문자여(聞子與), 왕도곤(汪道昆) 등이다. 이들은 모두 <거사전>에 그 전기가 실려 있다. 이외에 선사의 문집에 나타나는 거사들을 더한다면 그 수는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이들 거사들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염불과 관련된 기록들이다. 따라서 선사가 전적으로 염불의 정토법문으로 이들을 지도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우익지옥 선사는 호가 '팔불도인(八不道人)'으로 강소(江蘇)의 오현(吳縣)사람이다. 어려서 유학을 익혀 불교를 비판하는 <벽불론(佛論)>을 찬술하기도 했지만, 후에 운서주광 선사의 <자지록(自知錄)>과 <죽장수필(竹窓隨筆)>을 읽고서 불교로 돌아왔다. 선사는 이른바 사대고승의 마지막 선사로서 앞의 세 선사들의 사상과 행적을 본보기로 삼아서 전체적인 불교, 즉 선(禪), 교(教), 성(性), 상(相)의 각 종(宗)을 조화시키고, 정토로 귀결시켰다. 청대(清代)에 종각된 <영봉종론(靈峰宗論)>에서는 선사의 사상적 특징을 "제종을 융화(融會)했으며, 정토로 귀극(歸極)했음" (권10)을 명확하게 밝혔다. 특히 선사는 운서주광 선사를 존중해 상당히 유사한 정토사상을 전개했고, 주광 선사에 대해 "정토를 극력으로 주장하고, 계율과 교화, 선을 찬탄했다. 또 구두삼매(口頭三昧)에 대해서는 통절하게 비판했으나, 참다운 구세보살" (권5)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지옥 선사 문하에도 역시 적지 않은 거사가 활동했다. <거사전> 권49~50에는 선사의 재가제자로 추정되는 여러 거사의 전기가 실려 있다. 그 가운데 유명한 거사는 정문제(程文濟)와 전겸(錢謙) 등이다. 특



그림 · 김홍인

거사들의 활동은 만력연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염불정토를 중시하여 불교중흥의 전기 마련

운서주광은 불법이 쇠락한 이유를 바로 '광선'과 같은 선의 폐해로 진단하고 계율을 강조했다. 감산 선사가 지은 <연지대사탑명>에는 주광 선사에 대해 "계로서 족히 호법(護法)을 이뤘고, 절개(潔)로서 족히 세상을 격려했으며, 규율로서 족히 폐단을 구했다"(<감산노인몽유집(憨山老人夢遊集) 권27>)며 운서주광 선사가 계율을 강조했다음을 적었다.

주광 선사의 제자들은 1000여 명이 넘는다. 제자 가운데에는 재가자가 대다수이다. 거사의 제자 가운데에는 사대부들이 주축을 이뤘다. 감산 선사의 <연지대사탑명>에는 대사마(大司馬) 송응창(宋應昌), 태제(太宰) 육조광(陸光祖), 공유(宮諭) 장원번(張元?), 사마(司馬) 풍몽정(馮夢禎), 도망령(陶望齡) 등의 사대부들을 거명하고 이어 "도를 물었던 이들이 100여 명이 넘는다"라고 기술했다. 주광 선사의 제자인 광운(廣潤)의 <운서주광분사행략(雲棲株宏本

사행略)>에는 "운서주광 선사의 재세시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하의 명공(名公)과 고관, 장자, 거사들이 마음을 다해 스승으로 받들었다"고 기술했다. 더욱이 평제정의 <거사전> 권40~44에는 선사의 사법제자로 추정되는 30여 거사들의 전기와 수목과 있다. 이로부터 선사 문하에 상당히 뛰어난 거사 그룹이 형성돼 조직적인 활동을 했음을 짐작케 한다. 지면 관계상 이들 거사들에 대한 자세한 행적은 생략하지만, 대다수가 모두 정토신앙에 매료돼 '칭명염불(稱名念佛)'에 몰입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유행했던 양명학 태주학파의 '광선'에 대한 반성적 움직임의 결과로도 보인다.

자백진가 선사는 자가 달관(達觀)으로 17세에 호구(虎丘) 운암사(雲岩寺)에서 출가해 유식, 화엄 등의 교학을 배웠다. 선사는 후에 오대산에서 선문의 한 노숙(老宿)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선종의 부흥에 전념할 결심을 했다. 자백진가 선사는 평생 개당설법(開堂說法)을 하지 않고서 제방의 존속(尊宿)들과 잠문했기에 사승관계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선종의 부흥과 관련해 선사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활동한 거사들은 원광도(袁光道), 조공(焦公), 구여직(瞿汝直) 등 모두 양명학 태주학파와 깊은 관련이 있

히 정문제 거사는 항상 <화엄경>과 <발보리심론>을 읽었고, 호를 심원거사(心願居士)로 했다고 전한다. 이로부터 정 거사가 화엄학에 매우 정통했음을 알 수 있다. 정문제 거사도 염불정토를 주된 사상으로 삼았다. 정문제 거사의 부인 노(盧)씨 역시 독실한 신자로 매일 불명(佛名)을 2~3만회를 염불했다. <거사전> 권49

이러한 사대고승 문하 거사들의 활동은 만력연간(1573~1620)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기는 양명학의 태주학파에 속한 거사들이 맹렬히 활동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성격은 상당한 차별이 나타난다.

자백진가 선사 문하를 제외한 사대고승의 문하는

모두 선정융합의 길을 따라 염불정토의 길로 들어섰다. 그에 비해 자백진가 문하를 비롯해 태주학파 관련 거사들은 정토를 제창했지만 선의 길로 매진했다. 선과 정토에의 비중은 서로 달랐지만 이들은 사대고승 문하에서 활동하면서 명대에 쇠퇴해 가던 불교를 중흥시킨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특히 민중에 보다 스텝할 수 있는 염불정토를 중시했음은 중국의 거사불교가 일반민중과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은 민간신앙과 불교신앙이 결합될 수 있는 상당한 여지를 뒀고 이는 중국 거사불교의 중요한 과정의 하나이다.

■ 김진무 (중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어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블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011-474-1345
입금구좌: 농업 100023-56-156761(포명숙)

기문명리학강의안내
www.gimun.net
(사주, 작명, 택일, 관상, 풍수, 단서, 병방)

교육장소
•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 문의 02)961-0871~2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기문명리학 (해단, 병방론 과정)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사주명리학 (기초, 원리 과정)

개강일시 2010년 3월 첫주부터 (2월 말까지 선착순 마감)

원서접수 경희대학교 방문접수 및 인터넷접수

담당 교수: **손혜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6기)
손혜림 기문넷 대표
02)3476-3433

기문명리학이란?
일반명리학이 단지 운명을 추측하여 추정하는 추명학이라면 기문명리학은 정해진 운명의 바코드를 정확히 읽어내는 학문입니다. 수 천년동안 전맥에 의해 내려오는 학문인만큼 누구에게 어떻게 배우느냐가 기문을 성공적으로 배울 수 있는 관건이 됩니다. 카운슬링이나 심리요법을 하는 분, 종교단체를 운영하는 분, 특히 혼미한 세상의 등불이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참으로 필요한 진리의 학문입니다.

손혜림 원장 특별개인지도 문의 010-2376-3433

대한국불교조계종 종도모집

함께할 종도 여러분을 모십니다.

※본 종단은 비구부·비구니부를 별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스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본 종단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입증서류

1. 본 종 입증 소정 양식-1부
2. 여권 사진-4매
3. 주민등록등본-1통
4.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1매
5. 사찰 내·외부 사진-1매

입증과 동시에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법사증을 발급해드립니다.

대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523-61
총무원(02)379-5502 / FAX (02)379-0843

범음, 범패 의식 불교대학 제2기 학인 모집 안내

◆ 교육과정 ◆

■ 실기교육: 흥은사 주지 성각스님

1. 기본과정: 각단, 각청 불교제반의식
2. 49재 및 천도재 의식, 사물 범고 사다라니 범음범패, 상단권공 및 대령, 관육, 시식 천수바라미, 오공양 작법무

※영남 의식을 기준으로 함.

◎ 개강일: 양, 3월 2일 화요일
◎ 수강일정: 매주 화, 수요일
◎ 수강시간: 오후 3시
◎ 범음대학: 흥은사 대웅전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31-153번지

※ 초보자 환영

◎ 문의 및 접수처: 흥은사 종무소
(051)243-3165
011-887-8600